#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9일 (음력 12월 24일) 금요일

# 국민의당 출신 박준영 · 송기석 의원직 상실

## 박 의원, 총선 앞두고 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
## 법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공천헌금' 고의 인정"
##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4·13 총선 때 자원봉사자 수당 불법 지급 등 혐의
## 오는 6월 지방선거 해당 지역구 재선거 실시 예정

국민의당 출신 두 의원이 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란히 당선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은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과 김씨의 지위, 신민당 창당 추진 상황 및 재정 상태, 민주당과 통합 등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 변화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씨가 당시 민주당 등에서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 역시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 Photo 漫評

### 기지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된 정봉주 전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면서 "20대 처음 발을 내디뎠던 민주화 운동의 정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온 몸을 던져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향후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출마는 한다"면서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나가는 게 나을지, 지방선거에 나가는 게 나을지 당 지도부와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시스

정봉주

추미애

정봉주

# 성현출 광주 남구문화원장, 남구청장 출마선언

## "30만 자족도시 스마트시티 남구 만들 것"

성현출(54) 광주 남구문화원장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오는 6·13 지방선거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성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공감 에너지를 활성탄으로 30만 자족도시 스마트시티 남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밸리 첨단산단과 혁신도시의 생활거점 배후도시로서 근린편의시설 확충과 생활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교육, 문화관광, 도시재생 등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첨단 정보도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에 발맞춰 남구도 일자리 전략추진단을 구성, 구정 운영 체계를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교육특구의 특성을 살린 교육산업,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중심으로 한 실버산업, 양림동과 송암동을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관광산업, 대촌동 에너지밸리 전용산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메카 남구 조성을 통해 청년과 여성일자리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로 일궈내는 경제 남구 건설을 위해 '뉴 컬처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남구로 유입해 광주 문화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시재생, 아이디어 스토어 설립, 청년 문화 등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조직특보를 지낸 성 원장은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남구 실무집행위원장, 남구의회 3·4대 의원, 조선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성 원장은 다음달 4일 남구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영화배우 최종원과 최영호 남구청장, 미리톤 영웅 황영조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